



### CONTENTS

- 01 2022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학술상 교육상 시상식 개최
- 04 농생대 주요소식
- 09 부속시설 소식
- 12 동창회 소식
- 15 퇴임교수 인터뷰
- 18 신입교수 인사
- 30 연구성과 보도
- 32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 35 학생 일반
- 37 발전기금 출연자 인터뷰
- 38 발전기금 출연내역
- 39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혜택 및 출연방법 안내
- 40 예우프로그램
- 41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

발행일 | 2023년 1월 31일  
 발행인 | 장판식  
 편집인 | 류영렬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이효범, 최혜영, 이도엽, 강창구, 송인홍, 신성철, 김홍석)  
 발행처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4510  
 Fax. 02-873-5579  
 E-mail. calsnews@snu.ac.kr  
 https://cals.snu.ac.kr  
 디자인 | 동양기획 (02)2272-6826

### Headline

#### 2022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 개최



2022년 11월 16일(수) 11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2022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은 농생명 과학 분야 교육과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해 1991년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故 한인규 명예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교육 · 연구 · 사회봉사 등 큰 업적을 이룬 교수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남다른 열정, 탐과 노력, 헌신으로 큰 업적을 이룬 교수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을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 이희재, 학술상 수상자 현진호, 교육상 수상자 김진모, 권용훈 교수 외에도 오세정 총장 및 본부 보직 교수, 대학(원)장, 명예교수를 비롯한 18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음악대학 성악과로 구성된 학생들의 축하공연도 함께하여 시상식을 더욱 빛내주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명의 우수한 교수들이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 수상자

### |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이희재 교수

이희재 교수는 2000년 본교에 부임한 이래 과수원예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다. 주요 온대 과수의 과실 형질 및 병 저항성 분자 표지 개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과수 작물의 생리·생화학적 반응 구명, 과실 발달 및 성숙 과정에서의 생리적 변화 탐구 등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16명의 박사를 배출하였으며 「원예작물학II」, 「과수학 총론」, 「제초제와 식물생리」 등 저·역·공저서 15권, 논문 129편, 특허 등록 3건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과수원예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희재 교수는 우리나라 농생명과학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2001년 농생명과학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초기부터 창업지원부장과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농생명 창업 보육의 모델을 만들어 농산업을 지식 및 기술 집약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하였다. 2005년부터 농생대 기획실장을 맡아 현재 운영 중인 평창캠퍼스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를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5년부터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평창캠퍼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 기술의 국제화와 산학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2년간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해 오면서 우리나라 농업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의 로드맵 작성, 연구 기반 조성,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신규 연구 개발 사업 기획, 예산의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이외에도 한국원예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학회지가 영문지로 변모하여 국제적인 SCI 학술지로 도약하는 작업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과학협회 사무국장, 농촌진흥청 녹색기술자문위원회 원예특작분과위원장, 지식경제부 녹색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봉사해 왔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USDA-ARS Quality Paper of the Year, 국무총리 표창, 화농상, 한국원예학회 우수논문상,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현진호 교수

현진호 교수는 2004년 본교 부임 후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 왔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3D 프린팅 적층기술, 바이오잉크 개발, 친환경 피커링 에멀전, 종이기반 나노제너레이터,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하이드로젤 등이며, 그동안 나노바이오소재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박사 8명, 석사 10명을 배출하였다. Nature Communications, Carbohydrate Polymers, Cellulose,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Lab on a Chip, Chemical Communications, Journal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Chemistry 등 국내외 저널에 7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학술 강연 150여건, 특허 9건 등 바이오소재공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나노셀룰로오스 리빙페이스 시스템 기초연구실을 설치하고 인공 식물 구조체, 광합성 기능 하이드로젤 시트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진호 교수는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교내외 보직 수행 및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교내에서는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원장,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장, 바이오소재공학전공주임 등을 역임하였고, 대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연구지원사업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 4차산업 전략소위원회 위원장과 산학협력위원장, 한국바이오침학회 재무위원장, 한국잠사학회 이사, SPIE International Conference NBSIS 총무 등으로 학문 교류와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교외 봉사활동으로 (사)행복공장 이사장, 녹농포럼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우수강의상, 우수연구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3년 연속 한국공업화학회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였다.

# Headline

## |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상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김진모 교수

김진모 교수는 2002년 본교에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산업인력개발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면서 그동안 박사 24명과 석사 41명의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담당교수로서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공통핵심역량인 글 쓰고 말하는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자기관리능력 등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를 만들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이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별로 직접 발표하게 하고, 그 발표를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질문하게 하며,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훈련 등의 토론수업을 활성화하고자 힘써 왔다. 또한, 학생 상담과 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학부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으로 2학년에 새로 진입하였지만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입문과목인 '산업인력개발론' 수업을 통해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전공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김진모 교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BK21사업단 산업인력개발 전문가양성사업팀을 맡아 박사후연구원 및 대학원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업하여 산업인력개발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인 진로직업교육 연구센터를 맡아 우리나라 진로직업교육의 정책연구 발전과 후학 양성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을 통해 중등직업교육 교원의 역량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우리나라 직업교육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부학장을 역임하면서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선정을 위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대학원 학사조직 개편을 완수하였고, 전공별로 상이한 입장과 요구로 인해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기초교육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여 교육과정의 운영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 |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상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권용훈 교수

권용훈 교수는 2018년 본교 농생명공학부에 부임하여 응용생명화학전공의 교육과 천연물 전합성 기초연구에 전념하였다. 학생들을 일방적 교수-학습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연구자로 존중함으로써, 피어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업 성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의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자 애썼으며, BK21 FOUR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을 비롯한 학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폭넓게 활동하면서 교육 및 대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권용훈 교수는 부임 이후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제공하는 학부생 대상의 유기화학 교과목을 단독으로 담당하여 4년간 매년 평균 2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열정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강의를 제공하였다. 매 학기 대형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농생대 대부분의 학부생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하여 정규 강의시간 외에 질문 및 보충강의 시간을 두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였다. 이른 아침의 소규모 묶음 수업, 주말의 보충수업, 적극적인 Q/A session을 통해 “친절한 유기화학” 수업을 가꾸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대형 강의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교수법의 질적 향상을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다.

# 주요소식

## 1 카길한림생명과학상에 조철훈 교수 선정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자로 축산식품 가공 분야에서 플라즈마·농식품 분야를 개척한 조철훈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와 식물세포와 기관의 분리 현상을 연구하는 곽준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뉴바이올로지전공 교수가 선정됐다. 카길한림생명과학상은 2015년 제정해 농수축산학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포상한다. 매년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패와 함께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조철훈 교수는 축산식품 가공 분야의 계적 연구자로서 그 공로를 평가 받았다. 조철훈 교수는 축산물의 가공공정 개선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저온 플라즈마 연구를 공동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공동 창업 및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 특히 '플라즈마 농식품'이라는 융합연구 분야를 개척해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줄기세포, 조직공학, 식육학을 응용해 근육을 체외 배양한 후 가공해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전통 식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배양육 관련 연구도 진행하는 등 축산 식품을 기반으로 한 융합 연구와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용순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류와 지구의 풍요로운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하는 농수축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분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수상하신 분들의 연구업적과 농수축산 분야의 발전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2 류관희 명예교수 '기부자의 벽' 현판식

2022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발전기금 고액기부자 류관희 명예교수에 대한 '기부자의 벽'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기부자의 벽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기부금을 출연한 인물들을 기념하고자 만든 뜻깊은 공간으로, 기부자의 명판을 농생대 2층 로비 측면의 벽에 부착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류관희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를 1967년에 졸업하고, 1979년 우리 대학 농공학과 교수로 임용 후, 2009년 정년퇴직까지 30여년 동안 농업기계의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으셨다. 특히 트랙터의 자동제어 시스템과 농업용 로봇개발 등으로 농업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농업 기계공학 분야의 많은 저서 편찬과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뤘다. 또한, 제17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을 역임하면서 농생대의 관악캠퍼스 시대를 여는 큰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행사는 류영렬 기획전략본부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장판식학장의 인사말, 류관희 명예교수의 답사, 현판식, 감사패 및 선물 전달,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판식학장 및 집행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교수 등을 비롯한 여러 농생대 구성원이 참석하여 내빈을 맞이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농생대는 기부자의 벽 현판식 이외에도 감사패, 기념품, 학술림 등 수련원 무료이용, 농생대 행사 초청, 기금명칭 부여 등 다양한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트리트지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장판식)과 주식회사 트리트지(대표이사 신호식)는 5월 11일(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윤대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을 비롯한 부학장단과 트리트지 신호식 대표 및 관계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국내외 농식품 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식품 산업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상호 협력 분야로는 ▲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인력 교류 활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용 ▲ 관련 산업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활동 공유를 위한 협력 ▲ 상호 연구개발 활동의 다양한 분야로

# 주요소식

확산을 위한 협력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등이 있다.

트릿지 신호식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이 인력 및 연구 교류 등의 협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농업계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은 "양 기관이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며 업무협력의 소회를 밝혔다.



## 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여덯끼니·메가존클라우드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장판식)은 여덯끼니(대표 정용환),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이주완)와 7월 4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윤대섭 대학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을 비롯한 부학장단과 여덯끼니 대표,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명품한우 생산 정밀 사양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농업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상호 협력 분야로는 ▲ 공동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 스마트 농업 공동 연구, 목장 스마트팜 구축, 연구소 설립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발전 ▲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인력 교류 활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용 등이 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은 "세 기관이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농업의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 5 서울대학교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장 한국식품과학회 차기회장 선출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2022년 7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사)한국식품과학회 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1968년 창립된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과학과 관련된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학술진흥, 식품산업 발전 그리고 국민 식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기학술대회 외에도 산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산업계의 핵심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식품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 및 규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장판식 학장은 "우리나라 식품과학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과학협회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6 고희종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 선정 및 이석하 교수 제67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 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학술원 회원은 각 분야별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여러 심사를 거친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회원이 될 경우,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그 지위가 평생 유지되며 학술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학술원 전체 정원은 인문사회과학부 75명,

# 주요소식

자연과학부 75명 총 150명이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2022년 7월 8일(금) 14시에 개최한 2022년 제2차 총회에서 학술원 신입회원 4명 선출 및 제67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신입회원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고희종 교수는 벼 잡종가세, 품종육성, 유전자분리 연구 등 벼 품종 육종 및 식물육종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위 신입회원들에 대한 회원증서 수여식은 2022년 7월 15일(금) 오후 2시에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문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하여 학문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초, 자연과학응용 총 4개 부분에 각 2명 이내로 시상되며, 학술원 회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다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수상자는 상장, 메달 및 상금(1명당 1억원)을 수여받는다.

자연과학응용부에서 학술원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이석하 교수는 녹두, 한국 야생콩의 유전체 전체 염기서열 해독 등 유전체 분석, 진화, 종분화 분석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뤘다.

## 7 서울대학교 이용환 석좌교수 세계식물병리학회 회장 선출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이용환(62) 석좌교수가 세계식물병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lant Pathology)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용환 석좌교수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세계 60개국 식물병리학회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3년 8월 프랑스 리옹(Lyon)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식물병리학회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Plant Pathology)에서 취임하여 2028년까지 5년간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계식물병리학회는 식물병리학 관련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의 식량 안보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UN)과 함께 2020년을 식물건강의 해



고희종 교수



이석하 교수

(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로 선정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5월 12일을 식물건강의 날(International Day of Plant Health)로 지정하는 등 식물보호 전반에 대한 역할을 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용환 석좌교수가 처음이다.

이용환 석좌교수는 서울대를 졸업, 미국 루이지아나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 아시아식물병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절강대학교 석좌교수,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으며, 미국식물병리학회에서 2013년 루스앨런 상(Ruth Allen Award)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펠로우(Fellow)로 선출되었다.



## 8 최도일 교수 2024년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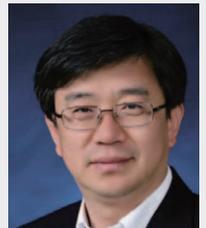
2024년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생명공학전공 최도일 교수가 당선되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1989년에 창립되어 현재 정회원 5,100명, 학생회원 9,800명을 포함한 16,50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학회로 매년 국제학술대회와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학회지인 "Molecules and Cells"(IF 5.0)를 출간하는 등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년도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게 될 최도일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직중이며 서울대학교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종자생명과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도일 교수는 "학회 최고의 장점인 다학제 철학을 바탕으로 학회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생명과학 분야에 식견을 넓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소식

## 9 이인복 교수 Division of Precision Horticulture & Engineering의 위원장 선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의 이인복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15일 국제원예학회(ISHS,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산하 14개 Division 중 Division of Precision Horticulture and Engineering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4년간 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되었다.



ISHS는 세계적인 독립원예조직으로, 1959년에 설립된 이래로 원예의 전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으고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여 전 세계적 규모의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 50개국에서 70,000명 이상의 개인, 대학, 정부, 기관 및 회사가 ISHS를 통해 원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하고 있다. ISHS는 매년 40개 이상의 전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작물 연구 분야의 기술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Acta Horticulturae를 발간하여 모든 ISHS 회원 및 여러 학술 도서관, 그리고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배포한다. 또한 ISHS는 German Society of Horticultural Science(DGG)와 공동으로 European Journal of Horticultural Science(eJHS)를 발행하는데, 이는 국제적인 범위에서 원예 분야의 중요한 발견, 새로운 방법론 및 기술에 대한 연구와 리뷰를 다룬다. 프랑스의 CIRAD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저널 Fruits에서는 열대 및 아열대 원예 작물에 관한 연구와 리뷰를 주로 다룬다. eJHS와 Fruits는 모두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Chronica Horticulturae는 이사회, 위원회, 부서별 소식,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일정, 주요 연구 소식 및 향후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기 간행물로, 이인복 교수의 위원장 선출 소식이 실렸다.

이인복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기 및 시설환경공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박사후 과정을 보냈다. 이후 일본 농업공학 연구소(NIAE)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일했고, 2001년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농공 연구사로 있었다. 2005년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이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부학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ITP 사회이슈발굴단 환경과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축산환경학회 부회장 및 국가농림기상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2022년 1월 1일에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회장으로 선

출되기도 하였다. 이인복 교수는 온실 및 축사와 같은 농업 시설의 환경 제어, 바이오 에너지, 전산 유체 역학(CFD) 등 대기·시설환경 및 에너지 공학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 교수는 ISHS가 지원하는 행사를 조직하는 데 약 20년 간 관여해왔는데 온실 환경 제어, 에너지 절약 및 농작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의장으로도 임명되었다. 또한 이 교수는 스마트 작물과 가축 생산을 위한 회의의 기초 연설자나 의장으로 정기적 초대를 받았다.

## 10 서울대학교 제12회 사회봉사상 수상자 선정

서울대는 제12회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김태우 선생(64), 김필주 선생(86), 최인영 선생(53)을 선정했다.

김필주 선생은 본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NGO 단체 '지구촌 농업협력 및 식량 나누기 운동협회' 창립자 및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세계를 뒤흔드는 여성 150인'에 선정되었으며, 대북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농업 전문 지식, 기술, 물품을 보급하고 종자를 개량하여 농가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며 유기질 비료로 토양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학내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학내구성원, 동문 등을 선정하여 2011년부터 사회봉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 11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 대학원(GS-IES) 개원식

10월 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65동)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개원식에는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인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강준석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집행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주현 실장, SK에코플랜트 김경호 고문, JH Solution 이정훈 대표와 삼성물산 정은영 그룹장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는 장판식 학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우원 이사의 축사(조주현 실장 대독)와 더불어 권주용 지휘자가 이끄는

## 주요소식

서울오케스트라 금관 5중주 축하공연, 50년 전통의 농업생명과학대학 밴드 샌드페블즈 출신인 이군택 교수와 허진희 교수의 깜짝공연 및 2022 에코사이언스 대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인 강준석 교수는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대학원의 공식적인 시작을 개원식을 통해 알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환경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은 그린뉴딜 사업 및 탄소중립 2050과 같은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형인 서울대학교가 현장중심형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원식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은 축사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110여 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발판으로 창발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모습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과감하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주도하는 환경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비전, 도전, 그리고 지식 플랫폼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특성화대학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은 지난 3월 시작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교육연구사업으로 SK임업, 대일엔지니어링, SK텔레콤, HLD 및 일본 토호쿠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산학협력프로젝트 ▲산학협력세미나 ▲현장실습 등 환경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운용 중이다. 특성화대학원 운영위원회 교수진으로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 류영렬 교수, 윤희연 교수, 강준석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최용주 교수,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센터장,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윤승준 연구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한 50여명의 교육인력과 함께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12 서울대학교 윤철희 교수 2023년 한림원 정회원 선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육준 · 이하 한림원)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2022년도 제2회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정회원 28명을 선출했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3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특히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대표논문 10편에 대해 연구업적의 수월성 및 독창성, 학문적 영향력과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한다. 농수산학부에서 정회원으로 선출된 윤철희 교수는 동물 면역학 분야에서 면역 조절 및 백신 개발, 미생물-숙주 상호작용, 대사조절이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뤘다.



### 13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2022 Agricultural Biotechnology Symposium 개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CFB)는 2022년 11월 18일 본교 203동 101호에서 『Metabolomics for Food & Human Health』라는 주제로 식품 및 인간건강과 관련된 대사체학의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연구의 위상을 가늠함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일본의 Hiroshi Shimizu 교수(Osaka University) 등 국내외 7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멀티오믹스의 대표 플랫폼 기술이자 시스템생물학 연구분야에서 핵심요소 중 하나인 대사체학 연구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연구정보를 교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부속시설 소식

## —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수목원장 김현석 교수 인터뷰

4월 5일은 식목일로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 심화로 인해 산림자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목일 제정 의의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만하다.



식목일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바로 수목원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도 수목원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악수목원과 수원수목원이다. 특히나 서울대학교의 수목원은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다. 식목일을 맞이해 서울대학교 수목원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수목원장인 김현석 교수를 만나보았다.

### Q1: 서울대학교 수목원은 어떤 역사와 특징을 가졌는지?

서울대학교 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인 만큼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시초인 수원 농상공학교에서 1907년부터 구내 수목을 관리하면서 시작되었다. 1913년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외래 수종인 리기다소나무를 들여와서 조림지를 조성했다. 수원수목원의 백년숲에서 이 때 당시 식재한 리기다소나무를 찾아볼 수 있다. 1971년에 이창복 교수님께서 연습림이었던 곳을 수목원으로 정식 등록하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 되었다.

### Q2: 수목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목원의 역할은 현지가 아닌 곳에 있는 수목을 보존하는 것이다. 원래 산지에 있어야 하는 수목들을 수목원에 식재해서 보존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한 수목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산림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해외 연구자와 교류도 한다. 관악 수목원의 경우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수목

원, 식물원과 활발히 교류한다. 식물원에서는 식물의 유전 정보를 알기 위해 식물의 자생지와 채취한 장소를 중요시한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은 원산지가 명확한 식물들을 심어야 하기에 수목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우리 수목원과 교류를 많이 한다.

### Q3: 수목원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

수목원에서는 식물 계절을 관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목원에 있는 사방댐을 이용해 산림에서 물의 저장과 관련된 연구도 한다. 또한, 관악산에서는 매년 산불이 나는데 수목원에서는 산불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연구의 경우에는 산불로 입은 피해가 복원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연구한다.

### Q4: 관악수목원의 후문만을 개방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40여 년 동안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는 후문을 열어 관악산에서 하산하는 등산객들이 관악수목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문을 개방하게 된 중요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수목원을 개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방문객에 의한 수목 훼손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수목원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수목을 들여와 식재하는 만큼 비싼 수목도 많이 있다. 방문객들이 귀하거나 값비싼 수목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수목원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오랜 기간 학생과 연구자들만이 수목원을 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화장실, 전기시설, 쉼터와 같은 시설이 미비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2년에 수목원이 서울대 본부로부터 1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을 위해 수목원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준비를 점진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낙후된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전기시설을 개선해 CCTV를 20여 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하산객들이 수목원을 통행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모든 문을 개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 Q5: 수목원 운영의 향후 계획은?

앞으로 3~4년 안에 서울대학교 수목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수목원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수목원 환경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부속시설 소식

## —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원장 현진호 교수님 인터뷰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은 농생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학부생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건물일 것이다. 오늘은 현재 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신 현진호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현진호 교수는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의 교수로, 현재 나노바이오소재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 Q1: NICEM(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란?

NICEM은 199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농생대의 부속시설이다. NICEM의 설립 목적은 고가의 연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공유하여 농업, 환경,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선진화하고,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세대의 첨단 연구기 활용 능력 역시 증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농업, 환경, 생명과학 분야의 산학협력 역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Q2: NICEM 현황

NICEM은 현재 9개의 특별사업센터와 11개의 기기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주요 사업센터를 소개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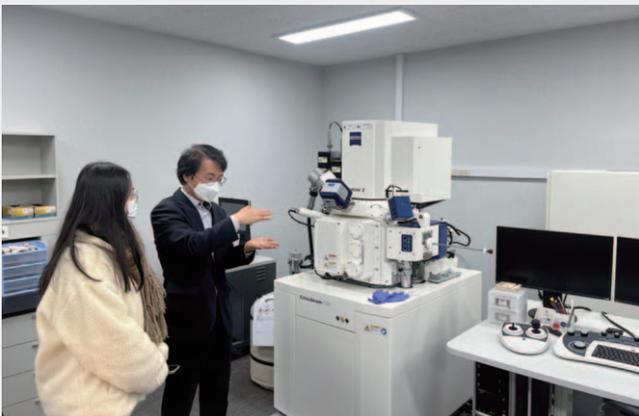
토양오염분석 센터는 토지개발과 녹지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염되었지만 가치 있는 땅이 바로 서울인데, 아파트 건축 및 재건축에 관한 토양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토양오염 분석 후 기준치를 만족해야만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염 우려가 높은 미군 반환지, 오염도 문제를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공원 등 다양한 토양을 분석하고 있다. 먹는 물 분석 센터에서는 지하수 오염 등을 검증하기 위해 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물 전염병이 발생하여 축산물을 매몰했을 때 발

생할 수 있는 오염을 분석하거나, 식수로 사용될 지하수가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이렇게 토양과 수질에 관련해 검증할 때 필요한 기준치는 표준물질로 판단할 수 있는데, NICEM의 표준물질센터에서 토양, 수질과 관련해 표준물질을 제정하고 있다. NICEM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였고 NICEM에서 만든 국제표준이 통과되기도 한 만큼 이 표준물질센터가 큰 역할을 맡았다. 유전체 분석 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전체 분석을 위한 재료를 사는 것만으로 1,2억이 소요되고 필요한 분석에 필요한 기기는 실험기기 중에서도 고가의 장비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NICEM에 유전체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NICEM에서는 시료 분석과 관련한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생명·환경과학교육센터에서는 연 4,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생명과학과 관련된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NICEM은 3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기원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체, 대학들로부터 많은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여러 국가에서 NICEM을 모델로 사업을 펼치려 하는 만큼 저희 역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업과 관련해서 이곳에 방문하여 장비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대학원생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Q3: NICEM 이용자들을 위한 한마디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는 양질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다. 사용자들이 쉽게 맡길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안하게 맡기셔도 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NICEM을 신뢰하셔도 될 것 같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관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건의해주시면 좋겠다.



# 부속시설 소식

## —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센터장 최영진 교수 인터뷰

### Q1: 간단한 자기소개

현재 농업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인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최영진이라고 한다. 7년 전 창업지원센터의 연구지원 부장으로 임용되어 창업지원센터의 직무를 하면서 창업지원부장을 거쳐 올해 초에 센터장을 맡게 되었다.



### Q2: 창업지원센터 소개

창업지원센터는 2000년도에 설립된 농생대의 부속 시설이다. 당시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면서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공유하여 농업 벤처 창업에 활력을 일으키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창업지원센터는 농생명과학 분야의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에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연구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술 자원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7년 미만의 기업들은 지원센터에 들어오면 법적 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더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외사업을 하고 있다. 교내의 교수님이나 학생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지라 농생명과학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 Q3: 창업지원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학생도 창업한 사람으로서 입주 신청을 한다면 적절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은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을 보육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관이지만, 학교 내의 시설이니만큼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돕기 위한 무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얼마 전에 벤처에 뜻을 가지고 이 공간에서 창업을 준비한 친구들이 올해 실제로 기업을 설립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매년 농생대에서 열리는 창업경진대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보통 창업경진대회를 보면 학생들이 뭘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창업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학생들과 매칭을 시켜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 Q4: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 쪽에 관심이 있었는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본인의 전공은 우리 전공 안에서도 굉장히 산업적인 연계성이 강한 분야의 전공이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도전이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아직 하고 있는 연구 분야들이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 당장 현실에서 사업화를 해서 뭔가를 만들기는 힘든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창업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 Q5: 창업을 꿈꾸는 농생대 학생들에게 한 마디

창업에 성공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현실에 옮겨 성공하기까지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재정확보, 인력 확보, 마케팅 전략, 시장 진입 및 창출, 관련 정책 문제, 기술 개발의 지속성 등 벤처에 성공하려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창업을 꿈꾸는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다양하다.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학생들을 위한 여러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농생대에서 매년 열리는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다면, 창업지원센터에서 각 분야의 멘토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무작정 창업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창업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 동창회 소식

## • 2022년도 새해인사회



1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농생대 동창회 새해인사회가 있었다. 이 날 행사는 입학50주년을 기념하여 72학번이 주관한 행사로 서병륜 동창회장, 장판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이 참석하였으며 모교 명예교수 및 고문, 자문위원, 동창회 임원과 72학번동문 등 70여 명의 참석과 동문들의 줌(Zoom)접속 참여로 임인년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 •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1,2학기 장학금 지급

구분	인원	금액(원)
상록문화재단 수석신입생	1	5,000,000
상록문화재단 학부생	30	87,118,000
상록문화재단 대학원생	2	6,000,000
상록문화재단 학업장려금	26	40,000,000
서헌장학금 (서헌재단 기부)	12	12,000,000
상록문화재단 사랑인재장학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48	31,500,000
합계	119	181,618,000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에서는 2022년 1,2학기 장학금을 119명에게 총 181,618,000원을 수여하였다. 특별히 2학기에는 대면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는데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과 장학금 제공자와 모교 교수 그리고 해당 학교 장학지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 2022년 상록의 날

입학 35주년을 맞은 87학번 동문들이 주관한 상록의 날 행사가 2022년 5월 14일 모교 201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줌을 통한 비대면 모임으로 동창회를 대신해 왔으나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어 모처럼 초록이 무성한 모교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상록의 날에는 서병륜 동창회장, 장판식 모교 학장이 참여하였으며 모교 명예교수 및 고문, 자문위원, 동창회 임원과 선후배 동문, 주관학번인 87학번 동문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줌(ZOOM)을 통해 접속해주신 동문들을 합하여 377분의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하였다.



## • AFP플랫폼 소개

2021년까지 AFP사업단 안에서 5개의 회사가 탄생되었고 올해에는 2개의 회사가 새롭게 설립되어 7개의 법인이 되었다. 현재 7개의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AFP센터(주)

AFP센터(주)에서 캐쉬카우 역할을 할 사업이 브로콜리 새싹 사업이다. 브로콜리 새싹 생산과 판매, 마케팅을 분업하기로 합의하고 생산은 AFP센터(주)에서 이후 판매까지의 과정은 파트너사에서 진행한다.

또한 계절 간 자연냉기 저장 · 이용 기반 차세대 신재생 스마트 온실 냉방 기술 수행을 위한 2차 실증설비 온실 구축을 위한 토목 설계, 건축 설계가 완료되었고 100평 정도의 온실을 구축하는 공사를 곧 시작한다. 내년에는 실제로 딸기를 재배하여 이 기술을 구현하고 실증할 예정이다.

# 동창회 소식

## AFP유통(주)

스누아몰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오픈한 이후 회원수가 2700명에 근접했고 누적 거래액이 1억6천만 원을 넘어섰다.

최근 몰스누아(Mall SNUA)란 인터넷 쇼핑몰을 새로 시작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서농상점>이란 이름으로 입점해 더욱 비중 있는 판매루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FP테크(주)

스누아TV는 동문 플랫폼 기반의 양방향 컨텐츠교류 시스템으로 동문들 소식과 소통을 글과 사진의 수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동영상과 다양한 영상 기술을 입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관심과 흥미를 크게 이끌어내고 있다. 지속적으로 동문 플랫폼으로써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AI(Agri-Infoscience)농업은 농촌의 고령화된 숙련 농업인들의 살아있는 농업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표준화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용인 백암면의 숙련된 수박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AI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AFP식물병원(주)

AFP식물병원(주)에서는 농업실용화 기술 R&D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ED조명과 페로몬을 결합한 다표적 해충 맞춤형 멀티트랩 2차 포장 시험을 광주 유기농 토마토 농가와 경기도 농업기술원 엽채류/고추 비닐하우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주)팍한농과는 디지털팍 해충발생 예측 모델 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8개월 계약기간 동안 3가지 주요 해충인 점박이응애,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발생 예측과 처방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 (주)AFP에코에너지

(주)AFP에코에너지는 화성시 장안면 일대의 바이오가스플랜트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60만평 넓이의 수도작 농경지를 확보, 30만평 규모 퇴액비 살포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6, 7월을 장안면 일대에서 농민들의 다양한 행사와 미팅에 참여하여 유대와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 AFP SNP(주)

AFP SNP(주)는 지난 7월 11일자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인터넷 쇼핑몰(www.seednplug.com)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기능성 위주로 채소종자 품종 50여 품목을 선정하여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를 위하여 Capsiate성분 함량이 높은 기능성 고추 품종과 향당노 효과가 있는 기능성 고추 품종을 정부로부터 통상실시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 AFP컨설팅(주)

지난 9월 22일, 수원캠퍼스 6동 교육관 314호 AFP회의실에서 AFP컨설팅(주) 발기인총회가 거행되어 법인의 출범을 선포하였다.

대표이사의 소임을 맡은 김부종(축산76) 동문은 동문들의 네트워크와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농식품산업이 미래다'란 모토에 걸맞게 다양한 농식품 분야에서 향후 10년 동안 10억 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구현한다는 사업 배경과 2030년까지 1000명을 넘어서는 동문 자문단 구축, 1000개 이상의 기업 네트워크,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자문한다는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다.

## • 제66대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학79) 장관 취임

정황근(농학79)동문이 제66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5월 10일 취임하였다. 정황근 동문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0회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1985년 농림부사무관에

# 동창회 소식

임용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두루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으로 승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파견되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서 청와대 내의 농업정책을 진두지휘 하였고 2016년 8월부터는 차관급인 농촌진흥청장으로 영전하였다. 2017년 5월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 출범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2017년 7월까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한 이후 공직을 퇴임하였다. 2018년 8월부터는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와 초빙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청문회를 거쳐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100호 발행

2022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100호가 발행되었다. 동창회보는 제2대 동창회장 이창구 교수가 1978년 9월에 창간하였으며, 이는 초대동창회장 조백현 학장이 1948년 4월 1일 동창회를 창립한 지 30년이 지난 때이다. 이제 2022년 9월에 이르러 동창회보는 100호가 발행되었으며 누적 분량은 총 3794 페이지에 달한다.



### • 제18회 동문 바둑대회 농생대팀 4년 연속 우승

7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에서 열린 제18회



동문 바둑대회에서 농생대 팀[팀원: 김기욱(농생물71), 노근수(임산공77), 이재철(농토목86), 홍순선(식물생산92), 지성욱(바이오시스템소재99)]이 4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인문대팀과의 결승전에서 농생대팀이 승리하면서 상대 전적을 4승으로 늘렸다. 농생대 동창회에서 바둑대회 우승을 위해 지원금을 보내주었다.

###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현액 대상자로 고(故) 정남규(농학36) 초대 농촌진흥청장, 고(故) 류달영(농학33)교수, 고(故) 신용화(농화학51)박사, 한상기(농학53)박사 4인 헌정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현액 대상자 4인을 선정하고 4월 27일 현액식을 개최하였다. 현액 대상자는 고(故) 정남규 박사, 고(故) 류달영 박사, 고(故) 신용화 박사, 한상기 박사이다.



고(故) 정남규(농학36)

고(故) 정남규 박사는 농촌진흥청 초대 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나라 농촌지도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농촌진흥사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故) 류달영 박사는 농촌 운동가이자 교육자로서 농업 교육, 농민 권익 신장, 사회개혁 운동에 이바지하며 평생을 농업 발전과 교육에 헌신하였다.



고(故) 류달영(농학33)

고(故) 신용화 박사는 토양학 연구에 헌신한 과학자로서 전국 정밀 토양도 완성, 토양통 설명서 발간 등 우리나라 토양분류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고(故) 한상기(농학53)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 최초의 한인 추장(농민의 왕)으로 추대된 인물로, 아프리카인의 주식 작물인 카사바의 품종을 개량하고 널리 보급해 아프리카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날 농업과학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에서 열린 현액식은 생존해 있는 현액자를 비롯해 후손, 친지가 참석한 가운데 현액자 기념 영상 시청, 현액자 증서 및 기념패 수여, 동판 부조 제막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상기(농학53)

# 퇴임교수 인터뷰

## “정말 보람있고 재밌겠다”하는 공부와 일을 해라.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교수로 재직하시다 22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맞으신 최영찬 교수님을 인터뷰 하였다. 인생의 절반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보내시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데이터 기반 정보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을 뛰어온 최영찬 교수님을 만나 보았다.



### 최 영 찬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님께서서는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지도전공 77학번으로 입학하셨다. 1984년부터 7년간 미시간 주립대에서 농업 경제학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시고, 이후 바로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에서 연구교수로서 미국 농무부의 연구를 진행하셨다. 1993년에 다시 서울대로 돌아와 농촌사회교육전공의 조교수로 부임하신 후, 1997년 학부 개편 이후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재직하시고, 올해 8월에 정년퇴직하셨다. 인생의 절반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보내시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데이터 기반 정보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을 뛰어온 최영찬 교수님을 만나 보았다.

### Q1: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와 강의를 진행해왔는지

미국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하고 연구교수로 근무하는 동안은 주로 농산물시장 예측과 농가 재정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노스다코타 대학에서는 노스다코타 주의 중요한 농산물인 트림 밀(Triticum durum)을 포함한 밀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농장들의 경영성적을 비교·분석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경영과 유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돌아온 후에는 ‘농업정보체계론’ 강의를 개설하였다. 이 강의에서는 미국 농업의 정보화를 소개하고, 농식품 산업 정보화의 이론적 기반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농장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농장경영을 위해 컴퓨터를 소유한 농장이 거의 없었다. 데이터 기반 농업을 발달시키고자 우리가 먼저 농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양돈농장관리를 위한 피그플랜을 시작으로 한우, 낙농가, 산란계 농가, 육계농가, 과수농가 등을 관리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양돈농장에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새끼를 기를지, 언제쯤 도축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지 생산성을 비교·분석하고 관리하여 농가의 생산과 경영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피그플랜은 도드람, 포크벨리 등의 주요 양돈조합과 CJ사료에서 채택하였고, 많은 농장에서 사용되어 생산성을 20% 이상 향상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산지유통센터와 영농법인 등 농업 경영체의 업무관리를 위한 ERP(전사적 지원관리시스템)를 개발, 보급하여 산지 유통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KG farm(경기 사이버 장터) 등의 농축산물 쇼핑몰을 구축하여 농식품의 전자상거래를 시작하였다.

# 퇴임교수 인터뷰

지금이야 많은 농가들이 농장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당시 농가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모르던 시절에 농업 정보화를 위해 직접 농가를 다니며 프로그램을 알리고 교육하는 일이 많이 힘들었다. 이제는 대학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스마트 농업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지농을 설립하여 스마트 농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정보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 Q2: 농생대에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급격하게 바뀌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응하는 현장 농민들의 노력과 농생대 선배님들의 현장 지도력에 감명 받았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대형유통·외식업체들이 주도하는 농식품 시장의 변화 속에서 농민들이 협력하여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시장경쟁력을 키워내는 것을 보았다. 우리 농대 선배님들께서 이런 현장의 변화를 이끄신 것이 인상 깊었다.

1990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양돈농가들이 모여 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 판매를 하는 '도드람'이라는 조합을 만들었다. 현재 도드람은 도축장, 사료공장, 식품회사, 육종회사, 연구소, 은행, 음식점 체인을 포함하는 대규모 양돈 조합으로 크게 성장하여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통을 선도하고 있다. 프로배구리그를 후원하여 "도드람 V리그"로도 잘 알려졌다. 농생대 66학번故진길부 초대 조합장을 비롯한 선배님들이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셔서 600여 조합원 농가들과 함께 도드람을 양돈산업 대표주자로 성장시켰다. 부경양돈, 제주양돈 등 협동조합들과 함께 농민들의 힘으로 양돈·돈육산업 선진화를 주도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안성농협, 순천농협, 완주로컬푸드, 대구경북농협 등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아지고, 시장의 유통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도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필요하면 모여서 협동하고 유통구조의 변화에 함께 대처하여 농업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 Q3: 퇴임 후 앞으로의 계획은

원래는 현장 일에 많이 참여하고,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가지려 하였다. 제자들이 이끌고 있는 (주)지농에서 함께 연구하고 농가와 농식품기업들을 찾아 보려고 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어 관악뿌리재단의 고문도 맡았는데 신장병 투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투병 생활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되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 Q4: 앞으로 서울대 농생대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다면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농업 경제도 데이터 기반 농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 변화, 병해충 피해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예방, 해결하여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생산과 유통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며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농업선진국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 민간주도로 오랫동안 스마트팜의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축적해오며, IT 기업들과 농업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장 확대에

# 퇴임교수 인터뷰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정보화, 디지털 경제, 빅데이터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만큼 농업 데이터의 정보화와 자동화도 필요하다. 더욱이, 농식품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규모에 있어서 IT산업,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는 주요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0년전 이미 농업생산 50조, 식품제조 75조, 외식 78조의 총생산으로 생산과 고용의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이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생명과학과 더불어 정보화에도 관심을 크게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응용학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농생대에서 연구하고, 좋은 인력을 많이 양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데이터 기반 농업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이 모두 필요한 만큼 다른 학문 영역과의 융합 연구에도 힘쓰면 좋겠다.

## Q5: 세계에서 우리나라 농업만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업생산 규모의 단순 확대보다는 생산·식품가공·유통·외식에 이르기까지 농식품산업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연관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산업규모도 최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농가의 규모와 생산성만을 키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품목에 맞는 유통과 산업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 비해 농지의 규모가 작음에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협동조합 중심의 가치사슬 통합으로 양돈과 돈육산업의 데니쉬크라운, 화훼산업의 플로라 홀랜드를 세계 최고의 농식품기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일찍이 농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기술을 발전시켜 활용하였다. 우리도 이들처럼 협동조합기반의 농식품산업으로 생산·가공·유통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지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들처럼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 Q6: 마지막으로 서울대 농생대를 구성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한마디

학생들은 젊을 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공부와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 보람있고 재밌겠다”하는 공부와 일을 해라. 그를 위해서 건강도 신경 쓰고 운동도 많이 해라.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방의 국립대학과도 협력하며 함께 가야 한다.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협력적이어야 한다. 국립대학들끼리 먼저 협력하고, 이후에 다른 대학들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환교수와 교환학생을 활용하여 서로의 대학에 없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대학과의 벽을 없애고 우리가 가진 인적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세계적인 대학들과 더 나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원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대학과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

이외에도 2022년 2월자로 퇴임하신 환경재료과학전공의 이학래 교수님, 산림환경학 전공의 정주상 교수님, 식물미생물학 전공의 황인규 교수님과 2022년 8월자로 퇴임하신 원예생명공학전공의 손정익 교수님께서도 계시나 지면상의 문제로 모두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임교수 인사



김형석

농림생물자원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2022년 봄에 작물생명과학전공 조교수로 새로 부임한 김형석 교수를 만나보았다. 김형석 교수는 본교 조정·지역 시스템 공학부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 UC 버클리에서 박사 후 과정을 보냈다. 현재는 작물과 환경 및 지속가능성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 Q1: 학부 때와 석·박사 과정의 전공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전공과 연구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학부 4학년 때부터 석사과정 동안 조정 생태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 석사과정 연구실에서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숲, 논 등 여러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었고 석사 과정을 마칠 때쯤 논벼와 논 생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연구실에서는 콘벨트 내 주요 작물인 옥수수과 콩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었고 주변의 연구팀들 또한 오랜 시간 작물 연구에 집중해왔기에 깊이 있는 작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작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경험을 쌓게 되면서 작물생명과학전공의 교수직에 지원해 부임하기까지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져 온 것 같다.

## Q2: 본인의 세부 전공에 대한 내용 소개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하나의 그림에 연구실의 주요 연구 방향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한 가지 방향이 작물의 표현형 정량화, 다른 하나는 디지털 농업이다.

작물의 생산성은 작물의 유전성과 환경, 재배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서 도출되는데, 이때의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작물이 발현되는 형태를 표현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표현형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작물이 자라는 형태 혹은 생리적인 특성을 환경·재배 기술적 조건을 고려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육종 과정에서의 새로운 품종들이 변화하는 환경조건 아래 다양한 재배 기술의 적용에 따라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다.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해 식량 안보를 담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 연구실의 또 다른 주요 연구 방향인 디지털 농업은 주로 노지에서의 디지털 농업을 뜻하고, 원격 탐사를 기반으로

작물 생육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필요한 환경 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정 재배 기술을 적용해 최적화된 재배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격 탐사는 물체와 닿지 않은 상태에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격 탐사를 활용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현장 관측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또 비파괴적으로 작물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이 같은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연구실 디지털 농업 연구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이다.

## Q3: 올해 새로 부임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한 학기를 보낸 소감

무엇보다도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본인한테는 익숙한 모교임에도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학생이었다가, 연구자가 되었다가, 교육자가 되었으니. 강의를 하고, 연구실을 이끌고, 그 밖의 다양한 일들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 우리 전공의 교수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적극 도와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앞서 소개했듯이 크게는 표현형 정량화와 디지털 농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데, 두 가지 방향 모두 최근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활발한 연구 활동과 국제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작물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 Q4: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

작물생명과학전공 학생들에게는 우리 전공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탐색해 보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작물생명과학은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영원히 인류에게 중요한 연구 분야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수요 혹은 산업적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눈과 귀를 열고 다양한 기회를 찾아가면서 흥미를 확장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학생 여러분이 자부심과 열정을 품고 공부하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에는 매우 다양한 전공들이 함께 있는 만큼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 우리 농생대 학생들 각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고 거기서 크고 작은 성취하는 즐거움을 이어가며 멋진 미래를 펼쳐나가기기를 기대한다.

# 신임교수 인사



## 안 태 인

농림생물자원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2022년 9월에 손정의 교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된 안태인 교수를 만나보았다. 안태인 교수는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차세대 농업기술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생산기술의 고도화 연구를 하고 있다.

### Q1: 시설원예학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

학부 때 식물생산자원 분야를 전공하면서 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꼈다. 이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식물 환경 조절 시스템이고 이게 생산 시스템으로서 구현된 게 시설원예와 식물공장이다. 시설원예와 식물공장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랩을 찾다가 서울대학교 손정의 교수님이 운영하시던 랩이 본인이 원하던 연구를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본인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 Q2: 연구실에서 현재 연구하는 주제

아직은 연구실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대략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했듯이 식물 생산 시스템의 고도화 연구다. 전통적으로 식물이 생육하는 적정 조건 등은 요인 실험을 통해 나타난 표현형의 변화 관찰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찾아낸다. 그런데 식물의 내부에서는 매우 동적인 반응들이 일어난다. 식물의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단백질과 같은 내부적인 표현형과 식물 형태에 이르는 외부적인 표현형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연쇄 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식물 내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재배기술 영역을 탐구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 환경 그리고 재배시스템 사이의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저희는 이에 대한 분석과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식물의 형태학적 표현형에 관련된 연구다. 우리는 식물의 형태를 3D 구조 데이터로 변환하여 입체 구조를 분석하

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후 식물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상생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딥러닝 기반의 식물 생산 기술 응용 연구다. 식물 생산 기술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 강화 학습과 같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시스템 해석을 통한 새로운 가설 예측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

### Q3: 농생대 학부생들이나 원예생명공학 전공 학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농생대 학부생들과 원예생명공학 전공 학부생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얘기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산업을 ICT 기술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술적인 융합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시장도 혼란스럽고 연구자도 방향성을 딱 잡아서 가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배적인 기술 설계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다. 농생대 학생들이 결국은 농업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이나 관련된 산업에 나가게 될 텐데, 거기서는 농업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기술 개발에 있어 적절한 문제를 정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농업 시스템이라는 게 재배자, 재배 기술, 생산 시스템 등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미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농업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춘 농생대의 인재들이 산업에 나가게 되면 확실히 차별성 있는 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Q4: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방금 한 이야기들이 학부생들한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본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 연구는 산업이 없는 존재하기 어려운 분야다. 식물 재배생리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좋은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차세대 농산업도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에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개척자적인 기술 또는 그 체계를 설계하고 공급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 신임교수 인사



이 호 범

농림생물자원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원예생명공학전공에서, 3대 작물인 채소, 과수, 화훼에 대한 연구는 그 간격을 이루기에 특히 중요하다. 그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훼 및 조경식물학 연구실에 올 3월 새로이 부임한 이호범 지도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호범 교수는 지난 2020년 해당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올 3월 부임하여 원예작물, 특히 호접란과 같은 화훼작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Q1: 해당 분야와 연구실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농사를 지으신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유년기부터 농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하였기에 자연스레 식물생산과학부를 전공 분야로 선택했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첨단온실, 현재 스마트팜 분야로 크게 발전한 정밀농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국립수목원 인턴십 경험 등을 바탕으로 화훼 및 조경식물학 연구실에서 깊이 수학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 Q2: 연구실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한다면

화훼 및 조경식물학 연구실은 원예작물의 산업적 중요성과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며 원예학과(現 원예생명공학전공)가 농학과(現 작물생명과학전공)로부터 분리, 신설되던 시기에 함께 시작되어 원예생명공학전공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앞서 세 분의 교수님이 지도교수로서 재직하셨는데, 각 시대별로 중시되는 원예작물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해왔다.

현재는 나비와 유사한 형태의 꽃을 가지는 호접란(Phalaenopsis)을 중심으로 하는 난과 식물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sink/source 반응, CAM 식물의 광합성 반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개화 시기 조절 등 자생식물을 관상식물로서 산업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화훼는 산업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 성과들이 산업에 잘 연결되고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실의 존재 의의이자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의 일장, 온도 반응 등 생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연구 내용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 Q3: 전공 진입을 고민 중인 학부생들에게 전할만한 원예생명공학전공의 차별점이 있다면

원예작물은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식물이다. 예를 들어 향암, 항산화 작용과 같이 기능적으로 유용한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을 생성하는 채소가 바로 원예작물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에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원예작물이 특히 중요하다. 원예생명공학전공에서는 이러한 작물에 대한 형질 개량, 재배, 수확 후 관리, 유통 등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식량 작물에 비해 저장성이 낮지만 수요는 연중 존재하기에 시설원예가 요구되는 등의 산업적인 특징이 원예생명공학전공이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한편 원예생명공학전공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전공 수업의 경우 다양한 실습, 견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필드 트립, 개/종강 행사를 통해 경험을 쌓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친밀도를 높이며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강병철 지도교수님이 계신 원예작물유전육종학 연구실 학생들이 외국의 육종 회사에 인턴십을 가는 등 학생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 Q4: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한다면

대학원은 연구 위주의 공간이기에 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의 연장선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보다, 본인이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 학부생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보며 자신의 길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대학원 진학에 확신이 생긴다면 관심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해보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 신임교수 인사



한 희

농림생물자원학부  
산림환경학전공

올해 9월에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에 새로 부임한 한희 교수를 만나보았다. 한희 교수는 본교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오리건주립대학에서 박사 후과정을 마쳤다. 이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5년간 임업 연구사로 근무하다가 본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현재 산림경영학 연구실을 이끌며 학부생을 대상으로 산림자원경영학 및 실습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 Q1: 산림경영학 소개

산림경영학은 산림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분야다. 산림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임업인과 산촌 주민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당면하는 각종 현장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경영학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산림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알고 있어야 한다. 조림학, 생태학, 수목생리학, 야생동물학, 산림재해방재학, 산림경관보전계획 등 전공 지식을 두루 섭렵하여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인이 가르치는 산림자원경영학 및 실습 과목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다. 다른 전공 교과목들을 듣고 전공 지식을 충분히 쌓은 후에, 이 수업에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

## Q2: 전공 선택 계기

졸업할 당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은 대부분 좋은 기업에 취직했고, 본인도 취업 준비를 했으면 회사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문득 기업에 가면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인생이 짧는데 에너지와 젊음을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처음부터 산림 전

공에 대한 큰 포부를 갖고 입학한 것은 아니다. 학부 때는 오히려 전공에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마침 전공에서 환경을 다루니까 계속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가는 산림경영학이 본인에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 Q3: 올해 새로 부임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한 학기를 보낸 소감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일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부모님과 주위 분들도 다들 축하해주셨다. 임용이 결정됐을 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방만해지지 않고 정년으로 퇴임하는 날까지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 같다.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나서 9월 2일에 정년 퇴임식이 있었다. 두 분의 교수님이 퇴임하셨는데, 한 분께서 "이제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이어받은 거라 생각한다. 지금 서울대의 교원으로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와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Q4: 농생대 또는 산림환경학전공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농생대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본인에게 주어진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 다시 돌아가도 그 전공을 택하겠느냐고. 다시 학부생으로 돌아가 전공을 선택한다면 전보다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장단점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

각자의 영역에서 본인의 전공을 열심히 탐색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본인도 여러분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앞으로 농업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테고, 우리 임업을 포함해서 농업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본다. 대학에서 열심히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발판으로 삼아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 신임교수 인사



## 이요한

농림생물자원학부  
산림환경학전공

올해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에 새로 부임한 이요한 교수를 만나보았다. 이요한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전공 분야는 산림경제학 및 정책학 분야이고, 생태경제학 및 실습, 산림정책학, 산림정책 세미나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 Q1: 전공 및 연구 분야 선택 계기

연구자로 살아가기로 한 것은, 군대를 제대하고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에 결정되었다. 그때 호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외국인 친구가 'ordinary한 life를 살고 싶냐, extraordinary 한 life를 살고 싶냐'고 물어보았다. 그 때 후자라고 생각하였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공부라고 생각하였다.

경제학은 생물학적이거나 물리화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학문이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상을 숫자로 풀어낸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어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산림 분야에서도 산림경제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Q2: 연구 분야 소개

세 가지 꼭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책학 영역이다. 산림청과 협업을 하는데, 현재 산림청 정책의 핵심은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해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효과적인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학 영역이다. 지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자연은 price tag가 없다. 이런 가격이 없는 공공재 특성을 가진 환경재가 많다. 공공재는 특정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고 비배제성을 가지는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기가 힘들다. 산림에 가치를 매겨서 이게 우리에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는 산림 분야 국제개발 협력 쪽인데, 관심이 있는 것은 REDD+다. REDD+는 전세계 열대림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처음에는 아마존 편드라고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동남아, 콩고 등 적도 부근의

열대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에서도 REDD+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산림청의 인가를 받아 REDD+ 협회를 만들었고, 현재는 본인이 협회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 Q3: 올해 새로 부임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한 학기를 보낸 소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처음에 부임할 때는 기분도 좋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의욕도 있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서울대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이 큰 것 같다. 학문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 연구나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것에도 책임감을 느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Q4: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시간에 따라서 비전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영역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걸 위해서 대학원생을 잘 육성해내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다.

사회는 그동안 크게 변화해 왔는데 배우는 과목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 기초과목도 중요하지만, 응용과목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고 관련된 책을 하나 쓰는 것이 계획이다.

### Q5: 학생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어디에 써먹지, 이걸 배워서 뭐 하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이나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과 나중에 적용할 때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마침표가 아니라 것을 알려주고 싶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다. 풀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특정한 답을 지정해서 알려주기보다는 함께 토론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싶다.

### Q6: 농생대 또는 산림환경학전공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resilience를 이야기한다. "Be resilient" 쉽게 이야기하면 유연해지고, 자기회복력, 적응력을 키우라는 것이다.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조그만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진다. 사고의 유연성. 그것이 미래 사회에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신임교수 인사



## 신 성 철

농림생물자원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더운 여름철, 얇은 소재를 입으면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는 추위에 떨게 된다. 만약에 추우나 더우나, 습하나 건조하나 항상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옷이 있다면 편리하지 않을까? '지능형 바이오 소재' 라면 이런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불러올 수 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지능형 바이오소재 연구실을 운영하는 신성철 교수를 만나보았다. 신성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바이오소재공학을 전공했다. 바이오소재공학으로 박사까지 마치고 스탠퍼드 대학교 재료공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2년 동안 하며 연구를 이어 나갔다. 그 후 모교로 돌아와 올해 농림생물자원학부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의 신임 교수로 임용됐다.

### Q1: 인상 깊었던 연구에 대해 소개해주시 수 있는지

박사과정 동안에 박테리아 셀룰로스를 3차원으로 패터닝 하는 연구를 했었다. 박테리아 셀룰로스는 천연 재료 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질이다. 음료속에 코코넛 젤리, 흔히 나타데 코코라고 불리는 물질이 바로 박테리아가 만드는 셀룰로스이다. 그런데 이 셀룰로스가 물성이 좋고 물을 많이 함유하는 하이드로젤 소재이다 보니 학계에서는 이 박테리아 셀룰로스를 의료용으로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지금까지의 박테리아 셀룰로스의 문제점은, 항상 2차원의 sheet 형태로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로 밀가루 같은 고체의 내부에 박테리아를 3차원으로 패터닝을 했다. 이렇게 되면 밀가루 사이사이로 들어온 산소로 박테리아가 대사 과정을 거쳐 3차원의 셀룰로스를 만들게 된다. 이 연구는 유명한 저널인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가 되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스탠퍼드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할 때는, 지도교수였던 Sarah Heilshorn 교수와 함께 동물세포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삼차원 구조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촘촘한 하이드로젤은 세포가 내부까지 침투하기 어려웠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 형태의 마이크로 젤 입자를 한데 뭉쳐 프린팅하는 기술인 jamming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jamming 하이드로젤을 만

들었다. 미국에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는다.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연구실을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었고, 굉장히 실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어떻게든 실험실에 나가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실험을 진행했다. 미국에 가서 적응할 새도 없이 반년 만에 논문을 냈는데,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라는 좋은 저널에 게재되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공적으로 마친 연구라 더 기억에 남는다.

### Q2: 지능형 바이오소재 연구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능형 바이오소재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를 개척해보려 한다. 스마트 소재 혹은 지능형 소재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여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창문의 투명도가 변하여 날씨가 더운 날 햇빛을 차단해주는 스마트 윈도우, 습한 날 섬유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면서 습도를 떨어뜨려 주는 지능형 의복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능을 하는 소재를 연구·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연구자로서 목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지능형 바이오소재를 통해 이 첨단 시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

### Q3: 교육자로서의 목표

학사 4년에 박사 6년, 총 십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에 굉장히 애정이 깊다. 지금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에 있는 학생들은 다 후배면서 제자이다. 학생들이 앞으로 학계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해 나가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다.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커리큘럼에 추가하여 전공 교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 Q4: 학생들을 위한 한마디를 남긴다면

요즘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농학은 생명과학과 친환경 환경공학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재료를 만들어 농대만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한다. 현재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농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고, 전공과 농학적인 색깔을 살려 연구, 학계, 산업 전반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 신임교수 인사



## 정수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2022년 3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 새로 부임한 정수 교수를 만나보았다. 정수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전공분야는 바이오센서 및 농업전자 분야이고,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농업인공지능개론, 바이오센서 생체 계측 및 실험,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 Q1: 간단한 자기소개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2019년에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USDA-ARS에서 2년간 포스닥 연구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기전자응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바이오센서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바이오센서 및 농업 전자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 Q2: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

주요 연구 방향은 환경, 식품 안전성, 그리고 사람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바이오센서 개발이다. 바이오센서는 작물의 영양 상태 및 스트레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러한 바이오센서를 통하여 식중독 등의 질병 유발 물질 및 동·식물의 질병 요인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마이크로 컨트롤러(MCU)의 발달로 바이오센서는 컴퓨터와 유사한 작업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바이오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여 작물의 성장 정도, 출하 예상 시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Q3: 농생대 학부생들이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농업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식량, 생명,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농생대 학생들이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열심을 다하고 나아가 다양한 학제간 융복합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 Q4: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학자로서의 목표를 먼저 말해보자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와 센서의 성능은 점점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모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머신 러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높은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가진 바이오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작물 및 가축의 건강과 성장관리를 최적화 하고자한다. 교육자로서의 목표는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수업을 계속해서 보강해 가는 것이다.

# 신임교수 인사



민 경 진

농생명공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올해 서울대학교 응용생명화학전공 부교수로 새로 부임한 민경진 교수를 만나보았다. 민경진 교수는 학사와 석사는 한국에서, 박사과 포닥을 미국에서 한 뒤 최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 Q1: 본인 전공에 대한 소개

생지화학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을 지질학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중에 물질로는 탄소에 관심이 있고, 공간으로서는 육상 생태계나 토양에 관심이 있다.

## Q2: 토양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

학사 졸업논문을 쓰는 1년 동안 실험실에서 생활했었는데 계속 실내에만 있으니까 야외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걸 깨달았다. 원래 도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실험실 생활도 할 수 있고 야외 활동도 할 수 있는 전공을 알아보던 중에 생태학이나 토양학 분야로 점차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 Q3: 토양학의 역사와 전망 소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다. 사실 농학이라고 하면 거의 인류의 역사부터 출발하는데 그때는 토양을 식물을 기르기 위한 환경으로만 생각했고 토양 자체로만 생각하기 시작한 건 1800년대 후반이라서 역사가 200년 조금 넘는 신생 학문이다. 그래서 다른 학문에 비해서 아직 알려진 것이 많이 없다. 적립된 이론이 없어서 이론도 자주 많이 바뀌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간다는 느낌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화학은 거의 완성형이고, 생물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양학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이 1950년대 60년대 개발된 기술들이다. 앞으로 토양학은 기술적인 난제들을 극복하며 점점 더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 같다.

## Q4: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

생지화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지질학에서 출발한 것이다. 풍화

작용은 비바람이 불고 온도가 변해서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화학적인 작용이나 뿌리의 생장, 호흡으로 인한 탄산의 생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풍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체를 빼놓고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연구하는 것도 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이동하고 식물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땅속에 있다가 미생물들이 분해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연결 고리가 되는 과정들을 공부하고 있다.

## Q5: 올해 새로 부임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한 학기를 보낸 소감

지금까지는 재밌는 것 같다. 교수로 오기는 했지만 새내기라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워크숍이든지 많이 도와주고 있다. 요즘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면담하면서, 학교에 무슨 동아리가 있는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며 학교생활을 하시는지 그런 걸 많이 듣고 배우고 좋은 경험인 것 같다. 이번 학기에는 강의하지 않아서 학생들을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나마 학부생들을 만나니까 푹푹하고 좋았다.

## Q6: 농생대 또는 응용생명화학전공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농생대나 응용생명화학전공 학생들에게 국한 된 이야기는 아닌데, 요즘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 같다. 원래 대학교에 와서 누려야만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고 미안했다. 다들 힘들 텐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많이 받고, 노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 Q7: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생지화학, 토양학이라는 분야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걸 위해서 수업이나 실습이나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할 예정이다. 처음에 서울대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내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분야는 이제 한국에서 향후 20년 동안 없다고들 말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조언을 해 주신 건데 그 조언이 헛되지 않게끔 열심히 해볼 계획이 있다.

# 신임교수 인사



— 오 창 식

농생명공학부  
응용생물학전공

올 9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응용생물학전공에 새로 부임한 오창식 교수를 만나보았다. 오창식 교수의 전공은 식물 세균 병학이다.

## Q1: 응용생물학 전공 소개

응용생물학 전공은 이전에 농생물학과에서 바뀐 전공이다. 곤충과 식물 미생물 분야로 나뉘어 있다. 식물 미생물 쪽 중에서도 세균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균들이 식물에 어떻게 병을 일으키고 식물이 이런 세균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 세균에 의한 병에 대해 강의도 하고 있다.

## Q2: 식물 미생물학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계기

1991년도 농생물학과에 진학하면서 처음 미생물학에 접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감귤 과수원을 경험할 기회가 있어서 주변을 많이 보아왔고, 우연한 기회에 농생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막상 와보니 식물 병을 다루는 전공이었고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은 식물이라는 생명체를 병원균이라는 또 다른 아주 미세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데, 이 두 생명체 간 관계가 일종의 밀당처럼 보였다. 요즘 밀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병원균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식물을 공격하고, 식물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어하고, 두 생명체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병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식물이 건강을 유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 때 동아리도 만들었는데, 식물병 연구회 동아리도 만들고 식물병 채집도 다니고, 병 샘플을 가지고 실험실 가서 병원균도 분리해 보는 일도 했다. 그때부터 생긴 이 관심이 지금 거의 30년을 이 분야에 있게끔 만든 원동력이 된 것 같다.

## Q3: 수업 방식, 강의 내용을 결정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식물 세균 병학 및 실험이라는 강좌가 대학원생 강좌라 수강생들은 대부분 학부에서 총론 수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각론 수준의 지식은 접하지 못하고 대학원을 온 학생들이다. 그러다 보니 이 식물 세균 병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다른 병원균들과 비교를 하면서 식물 세균병이 가진 독특한 특성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또 강의 내용을 짤 때 전공생뿐만 아니라 곰팡이, 바이러스, 임상병리 등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식물 세균 병학 내용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만한 내용 위주로 짜고, 최근에 식물 세균 병학 분야에서 화젯거리인 분야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 Q4: 올해 새로 부임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한 학기를 보낸 소감

많은 연구자가 본인의 모교와 모과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로망이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로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 굉장히 기뻐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한테도 굉장한 도전이다.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10여 년 근무하다가 새로운 학교로 부임하였는데 실험실도 새롭게 세팅을 해야 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현재는 즐기고 있고, 바라는 점은 조금이나마 응용생물학전공이 발전하고, 전공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역량이 좋아지도록 발전할 수 있게끔 돕고 싶다는 것이다.

## Q5: 농생대 또는 응용생물학전공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사실에서 진실 찾기'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느끼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런데,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봐야 한다. 학생 여러분들도 보이는 현상을 단순하게 사실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진실을 찾도록 노력해 보길 바란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이러한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한다.

# 신임교수 인사



## 강 창 구

농생명공학부  
응용생물학전공

### Q1: 연구실 소개

우리 연구실은 행동생태학 연구실이다. 그래서 행동생태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주로 곤충을 연구하고 있고, 곤충 외에도 과학적 흥미가 있는 분류군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생태 외에 진화생태학도 흥미롭게 연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 행동의 기능 및 동물 형태의 진화 양상과 이유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다. 자연에 존재하는 종들이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형질들이 어떠한 환경적·진화적 요인에 의해서 진화하였는지 비교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연구해왔던 곤충은 나비목이다. 특히 나비의 색채가 어떤 영향으로 진화하였는지 연구하고 있다. 나비의 애벌레나 성충이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편의성도 있어서 나비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비목 외에도 꽃매미도 연구했었고, 거미도 잠깐 연구했었다. 연구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연구하는 편은 아닌 것 같다.

### Q2: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분야가 있다면

주력적으로 하는 분야는 동물의 색채에 관심이 많다. 서로 다른 종에서 왜 그런 색채들이 진화하였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다양한 색채를 가진 곤충들은 자신의 색채를 보호색으로 쓰는데, 보호색은 색채가 아닌 다른 보호전략들과도 관련이 꽤 깊다. 특히 곤충 독성과 관련이 있는데, 독성과 색채가 어떻게 공존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곤충이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태가 일어날 때 색채가 변하는데, 이 때 어떤 진화적인 요소가 색채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행동생태학 연구실이라서 행동을 보는 연구도 하고 있다. Jumping spider라는 깡충거미를 의태하고 있는 나비목이 있다. 나비목의 의태가 깡충거미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 Q3: 곤충을 연구하기로 정한 계기는?

원래부터 곤충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곤충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의 행동에 관심이 많았다. 연구를 시작할 때는 곤충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행동 연구에 있어서 곤충이 다른 분류군에 비해서 연구하기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나 곤충은 다양성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분류군이다. 종의 수도 많고, 형태, 행동도 특이적이면서 다양한 패턴들을 보여준다. 연구의 편의성, 여러 가지 종의 곤충 등의 연구에서의 장점 때문에 현재 곤충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Q4: 연구자로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다. 원래 연구를 하고 싶었고, 운이 좋게도 계속 연구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밟았다. 박사과정으로, 연구원으로, 캐나다와 다른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원하는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만족스럽게 연구해 왔던 것 같다. 이야기하다 보니 아찔했던 순간이 기억난다. 서로 다른 곤충 종의 색채를 비교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이용하려 했던 적이 있다. 국내 박물관은 샘플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이용해야 했다. 2019년도에 자연사박물관에서 샘플을 얻어야 했는데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해서 3개월 전에 전화해서 큐레이터한테 “꼭 가야한다” 말하고 허락받아서 겨우 겨우 갔었다. 그 해에 가지 못했다면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구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다.

### Q5: 농생대 혹은 응용생물학전공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엄청 큰 분야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안 있는 다양한 테마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찾아서 공부를 하길 바란다. 또한 흥미로운 분야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러한 학교 프로그램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신임교수 인사



최영준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 Q1: 조경학과에 대한 소개

조경설계분야가 농생태 타분야와 조금은 결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 조경을 'Design under sky' 라고 묘사하는 회사가 있는데,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는 조경의 가장 멋진 정의이기도 하다. 연구실 이름이 '조경디자인성능연구실'이다. 하늘아래 조경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은 Landscape performance을 가진다. 세 가지 종류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Aesthetic performance는 설계의 본래적 측면인 심미적인 효과를 다루는 디자인작업의 컨셉, 상세, 물성, 유형적 특징 등이 어떠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느냐의 측면이다. Cultural performance는 한 장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역과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로 오픈스페이스의 이용패턴이나 운영전략에 대한 측면도 다룬다. Environmental performance는 조경에서 환경적인 영향력을 수치화, 정량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조경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환경도 좋게 해준다는 사회적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발전할 기틀을 셋업하는 연구가 있다.

## Q2: 연구 분야를 정하게 된 계기

대학 입학 이후로 한 번도 진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졸업설계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게도 수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과목이 미술, 물리였으니까 조경이 어릴 적부터도 적성에도 맞았던 것 같다. 미술을 고2 수업 때 딱 1년 했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술 선생님이 한 학기 시작의 3주를 디자인이 가지는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왜 미술을 해야 하고 미적 센스가 있어야 하며, 뭐가 좋은지를 배웠다. 필립스가 면도기 디자인 하나로 전 세계를 뒤집어놓고 몇 조의 수익을 내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미적인 부분과 디자인 쪽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놓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분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개론 수업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Q3: 조경학과에 잘 맞는 학생의 특성이 있다면?

재미있는 질문이다. 역마가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장소 가보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도 맞을 것 같다. 좋은 공간에 가면 오래 머물고 싶다, 또 오고 싶다는 감정들에 진심인 사람들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팅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맞을 것 같다. 요새 반려 동물, 반려 식물 등이 한두 개가 아니며, 간접시설을 만드는 식의 시도도 있고, 정원에 식물도 아름답게 심고 있는데, 요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크고 수요도 많아서 식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분들은 원예도 적합하겠지만, 거기에서 공학적인 성격보다는 더 다양하게 사회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Q4: 농생태 혹은 조경학전공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다.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학문이 세상의 빛이 되거나 내 눈과 귀와 발로 가서 느끼는 걸로 연결되는 건 조금 오래 걸린다. 그에 반해 조경은 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만들면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과 동식물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활동을 접을 때까지 우리나라에 어디를 봤을 때 본인이 만든 선과 장소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 장소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장소로, 동네 사는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고, 상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분야에 있는 조경 설계 실무자들의 특권인 것 같다.

조경학과가 워라밸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꺼린다는 말을 학교 오기 전에 많이 들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언제까지고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내공을 갖추고 나면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직업이자 학문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많이 나누고 싶다.

# 신임교수 인사



## 최종우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학전공

### Q1: 간단한 자기소개

22년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현재 디지털 농업과 기술경영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과거와는 달라진 농업의 정보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농업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박사를 졸업한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3년 반 정도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농식품 산업 및 소비 관련 정부 정책과 농식품 생산 및 유통, 소비 분야를 골고루 연구하였다. 그 이후에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치며 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농식품경영, 농업회계, 의사결정론, 경영계획론을 가르치며 농식품 경영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는 중이다.

### Q2: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

최근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스마트팜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것이다. 농식품 정보 및 기술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 및 이들의 사회후생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농식품 기술 기업 경영도 연구하고 있는데, 농식품 기업 및 농식품 유통 기업들의 기술 경영 전략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게임이론 및 행동 경제학을 바탕으로 농식품 기술 기업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이론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 Q3: 농생대 학부생들이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학생 시절에는 여러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삶의 목표나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맞추어 여러 경험을 하면 좋다. 다만 너무 한 곳에만 열중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청년 이후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Q4: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앞으로의 목표는 농식품 기술 기업 경영에 대한 학문 분야를 개척해 나가며 연구하는 것이다. 아직은 농식품 기업 기술경영에 대한 산업 공학적, 산업 조직론적, 게임이론적, 행동 경제학적 접근이 많지 않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싶다.

# 연구성과 보도

순번	소속(전공)	관 련	제 목	학술지명
1	작물생명과학	양태진 교수	한국 토종 식물 백수오의 유전체 구조 및 다양성에 대한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에 게재	BioMed Central plant biology
2	작물생명과학	양태진 교수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팀과故 성상현 교수팀 공동 연구결과 고인 4주년 추모 논문 게재	Journal of ginseng research
3	작물생명공학	김광수 교수	가상의 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으로 작물의 생육을 예측한다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4	원예생명공학	허진희 교수	교배장벽을 극복한 배추와 무의 속간교잡종 배무채 이질 유전체 공존에 의한 유전적 안정성 획득	New Phytologist
5	산림환경학	박일권 교수	유혹의 향기로 잣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솔알락명나방 잡는다	Journal of economic entomology
6	산림환경학	김현석 교수	조경수의 초미세먼지 저감 능력, 잎의 특성을 통해 규명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7	산림환경학	김현석 교수	나무껍질(수피)만으로 나무 이름 쉽게 찾는다	Scientific Reports
8	산림환경학	김현석 교수	산림 생산성에 미치는 초미세먼지 영향 규명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9	환경재료과학	김현중 교수	김현중 교수 연구팀, 변형 및 복원 가능한 전기전자용 에폭시 비트리머 접착 소재 개발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10	바이오소재공학	곽선영 교수	식물 스트레스 실시간 감지하는 나노센서 개발	Nature Nanotechnology
11	식품생명공학	최상호 교수	서울대 최상호 교수 연구팀 치사율 높은 비브리오패혈증균 연구 결실 맺어	Trends in microbiology
12	식품생명공학	하남출 교수	세포분열기에 세포핵막 소실에 대한 분자 수준 메커니즘 규명	Jouranal of Biological Chemistry
13	식품생명공학	최상호 교수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적혈구를 매개한 혈전생성 원인 세계 최초 규명을 통한 새로운 치료방안 제시	Nature Communications
14	식품생명공학	하남출 교수	활성산소에 의한 루게릭병(ALS) 발병에 대한 분자기전 제시	Communications Biology

# 연구성과 보도

순번	소속(전공)	관련	제목	학술지명
15	동물생명공학	윤철희 교수	서울대 윤철희·조종수 교수 연구팀, 유전자발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분자 전달체 개발 연구	Progress in Materials Science
16	동물생명공학	윤철희 교수	서울대 윤철희교수 연구팀, 바이러스 감염 대응에 중요한 새로운 면역학적 기전을 밝히다	Science Advances
17	동물생명공학	유경록 교수	농생대 유경록 교수 등 국제연구팀, 클론성 조혈작용 대동물 모델 확립	Blood
18	동물생명공학	김희발 교수	김희발 교수팀 기존 척추동물 유전체에서 수천개의 유전자 조립 오류 발견	Genome Biology
19	동물생명공학	김희발 교수	농생대 김희발 교수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생물 수평 유전자 이동 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Nucleic Acids Research
20	식물미생물학	손호경 교수	인트론 전환과정(intron turnover)이 곰팡이의 병원성에 미치는 영향 구명	Communications Biology
21	곤충학	이승환 교수	수목류 주요해충, 진딧물의 원산지 및 진화적 유래 세계 최초 규명	Cladistics
22	곤충학	강창구 교수	거미는 행동을 통해 거미줄의 사냥효율을 높인다	Behavioral Ecology and Sociobiology
23	조경학	강준석 교수	그린인프라공학,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링포그의 효율성을 평가하다	Building and Environment
24	조경학	강준석 교수	도시의 홍수 취약성을 평가를 위한 HCFD 모델 개발 및 미래 취약성 평가	Journal of Hydrology- Regional Studies
25	조경학	류영렬 교수	식생 스트레스 조기탐지 시스템 개발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6	조경학	류영렬 교수	정지궤도 위성으로 광합성량의 일주/계절 변동을 모니터링하다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7	지역시스템공학	최진용 교수	물-식량-에너지-탄소 넥서스로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지속가능성 확보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28	지역시스템공학	강문성 교수	저수지 수위로부터 유입량과 방류량을 정확히 예측한다	Water Resources Research

#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 국내 인턴십

2022년 5월 1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주식회사 트릿지는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트릿지는 농·축·수산물 무역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만 종의 농·축·수산물 거래를 중개하고, 구매자가 플랫폼에서 주문을 넣으면 현지 농장 실사, 계약 협상, 운송 등 무역 업무 대행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트릿지의 상호 협력 분야 중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인력 교류 활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해 7월 트릿지 여름 인턴십이 진행되었다. 트릿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농산물 가격 결정 모델 부서에서 근무한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20학번 권용재 학우를 만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1: 트릿지 인턴십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기말 시험을 밤 새서 준비하던 중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공부 말고 다른 할 일을 찾던 중 이전에 학교에서 트릿지 인턴십 홍보 문자를 보냈던 게 생각났다. 그렇게 시험 공부하다가 인턴십 지원용 자기소개서 초안을 1시간 만에 작성하게 되었다. 자기소



개서 작성 일주일 후, 진지하게 임하자고 생각해 자기소개서를 수정한 후 제출하였다.

### Q2: 어떤 업무를 맡아 진행하시는지?

수입 과일 시장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그 중 망고를 주로 다뤘다. 망고를 수입할 때 각 시기별로 동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시기에 가장 가격이 높고 낮은지, 어떤 품종이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그 중 한 예시로 애플망고를 이야기해보자면, 애플망고는 주로 11월에서 4월 사이에 수입이 되는데 주 수입국인 브라질산과 태국산의 애플망고는 어느 시기에 한국으로 수입되는지 등의 데이터를 조사한다. 또한 각기 다른 원산지 혹은 품종의 시장 수요와 가격 조건을 맞춰주는 업무도 진행하였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동일 시장 가격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일일이 정보를 받아와 분석하는 시스템이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썬을 이용해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매시장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을 해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부수적 업무로 산지정보 분석 및 선호도, 품종 별 맛 분석, 축산 데이터 정리도 해보았다.

### Q3: 인턴으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개인적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인턴십을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제시하고,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연관 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업무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신기함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기도 하였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단순히 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추론하고 관련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추론을 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졌다. 오히려 엑셀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은 배우면 해결이 가능하기에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 Q4: 인턴십을 한 후 변화가 있다면

원래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 시도를 많이 해보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얼마 없어서 본인이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다. 하지만 인턴십이 끝난 후, 잘하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턴십 이후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서,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 능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엑셀이나 코딩은 어느 분야에 서나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인턴십 이후 이를 공부하여 현재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을 취득하였다. 더 나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앞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Q5: 다음 트리트지 인턴십에 지원할 학생들에게 남기는 말

트리트지 인턴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인턴십 이후 시장에 가면 농산물들의 원산지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농산물 시장 등 지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트리트지 인턴을 하게 된다면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 이전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데이터 처리 시 약 30~40만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주로 엑셀을 이용해 처리하기는 하지만, 엑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코딩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물론 업무를 하면서 배울 수 있기는 하나 업무 이전에 미리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접해보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대학원생 융합 창의연구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전공의 산림보호학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밟고있는 조성빈 학생을 만나보았다. 조성빈 학생은 현재 산림보호학 연구실에서 산림해충인 광릉긴나무좀과 공생하는 공생균을 연구하고 있다.



## Q1: 융합창의연구 프로그램 소개

대학원생 융합창의연구는 농생대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타전공, 타대학 재학생과 하나의 팀을 이루어, 농생명과학분야의 창의적이고 다학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를 연구설계부터 마무리까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이다.

학부시절에는 학부연구생, 학생창의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주 들었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대학원에도 교내 재학생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도교수님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 Q2: 현재 진행중인 연구 소개

우리팀은 “메타바코딩(Metabarcoding)을 활용한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 관련 Microbiome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림병해충을 연구하는 산림보호학 연구실 소속 연구원 두 명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의 균분자생태계통학 연구실 소속 연구원 한 분이 한 팀을 이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목병이다. 소나무재선충은 병원인 소나무재선충,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는 하늘소에 의해 살아있는 소나무류 수목을 죽이며 빠른속도로 확산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합성농약들은 인독성과 잔류독성, 저항성 해충의 출현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갖고 있다. 오늘날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중요해졌다. 이에 우리는 친환경방제법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인 하늘소의 생태 연구에서 시작하여 접근하였다.

#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 Q3: 융합창의연구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이 가능해지며, 각 분야의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업연구의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전공자에게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타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융합창의연구는 재학생 신분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협업에 필요한 역량을 융합창의연구를 통해 기르는 것이 학교 밖에서도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 같다.

## Q4: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하는 조언

융합창의연구 프로그램의 취지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융합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다. 학부 재학생을 위해 마련된 학부 연구생, 학생창의연구와의 차별점이 바로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융합연구의 설계를 위해서 어떤 분야 간 융합이 왜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정리해 둘 필요도 있다.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에서 집목되는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공부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융합창의연구를 위한 실험의 설계와 수행에 있어서, 참여연구원들이 서로의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융합창의연구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의 수행과 더 좋은 연구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 Q5: 마지막으로 남길 말

이번 융합창의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은, 연구 설계부터 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제안서 작성과 예산 집행, 결과 정리 등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며 연구자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한다. 서로의 분야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생각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수행의 경험이 융합창의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 아닌가 생각한다.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융합창의연구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업무가 다소 늘어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참여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협업과 자율적인 연구 설계라는 경험을 생각해볼 때 한번쯤 도전해볼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CAL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학생 일반

##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 기자단(CALS PRESS)

농생대의 다양한 소식을 동문과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통할 수 있는 농생대를 만들고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기자단 CALS PRESS가 2012년 6월에 창설되었다. CALS PRESS는 농생대 기획전략본부 소속 단체로, 서울대 농생대 공식 소식지인 "CALS Newsletter"에 실리는 기사뿐만 아니라 서울대 농생대 홈페이지와 공식 계정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올 기사들을 작성하고 있다. 나아가,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와 함께 우리 농생대의 자랑스러운 구성원들과 열정의 현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 기자단의 역사와 활동

처음 개설될 때는 단원 6명으로 작게 시작한 작은 동아리였다. 당시에는 기획전략본부 소속으로 Newsletter 제작만 중점적으로 했었다. 그렇기에 2021년까지는 기자단원의 인당 취재 활동도 연 2회 정도로 적었다. 그러나 2022년에 기자단 활동이 개편되며 농생대의 홍보를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우선, 연 2회만 작성하던 기사를 매달 작성하게 되었고, 기사 수도 확연히 늘어날 정도로 활발히 취재하게 되었다. 또한, 기자단 공식 SNS를 개설하여 농생대 구성원은 물론이고 외부까지 우리 농생대의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twitter에는 영어로 소식을 올리고 있고, 이번 학기(22년도 2학기)부터는 취재하는 모든 기사를 영문으로도 번역해 발간하여 해외에 농생대를 알리고 있다. 농생대와 관련된 주제라면 모두 기사화하는데, 주로 퇴임교수 인터뷰, 신입교수 인사, 농생대 부속 시설 인터뷰, 졸업생 인터뷰,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동아리 인터뷰, 기금 출연자 인터뷰를 취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재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농생대 홍보와 기자단 활동 본격화·체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카드뉴스 제작, 농생대 내 게시판 활용, 영상 제작, 포스터 제작 등을

시도하였다. 특히, 농업인의 날에는 N행시 짓기와 방 탈출 게임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농생대 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농생대 동아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단실 이전, 정기회의, 워크숍 등으로 기자단원의 단합과 기자단 활동의 본격화·체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 앞으로의 목표

학생기자단은 농생대 내의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여 농생대 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좁게는 농생대 구성원에게 내부 소식을 알릴 뿐 아니라, 넓게는 해외에 서울대 농생대의 위상을 알리고 높여, 궁극적으로 농생대 내 QS 순위(세계 대학랭킹)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농생대 동문을 만나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리고, 기자단의 SNS와 기사 업로드 플랫폼을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세계인이 농생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농생대 학생기자단은 이런 분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농생대를 내외에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해보고 싶은 학생은 환영한다. 또,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함께 글쓰기 실력을 늘려나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한다. 그리고 학생기자단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학부생들이 평소에 잘 만나볼 수 없는 교수님, 대학원생, 재/휴학생, 졸업생, 기금 출연자 등 많은 분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식견을 넓히고 여러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였다. 실제로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치관이나 진로의 전환점을 맞이한 기자단원도 있다. 이외에도 넓고 편한 기자단실, 활동에 있어 여러 지원이 장점이니 농생대에 애정을 가지고 농생대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알리고 싶은 학우분들이 학생기자단에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 단장님의 한마디

“우리 농생대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값진 경험 덕분에 농생대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생생하게 담아 더 넓은 세계에 홍보하고, 농생대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기자단 임원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더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기자단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생대 동문의 과거,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를 밝히는 기자단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전략적이고 폭넓은 플랫폼/콘텐츠를 통해 농생대 구성원의 원활한 소통과 농생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생 일반

## 새내기 배움터 새짱 인터뷰

지난 2월 17일 농업생명과학대학 22학번 신입생들을 위한 새내기배움터가 농생대와 문화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새내기배움터를 위해 두 달 간 준비해 온 새내기새로배움터 준비위원회의 김민욱 학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민욱 학우(농경사 20)은 2022년 새내기새로배움터 준비위원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새내기배움터준비위원회 선발과정과 구성에 대한 소개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를 준비하면서 새내기새로배움터 준비 주체(이하 새주)를 뽑는 과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과거 대면으로 새터를 준비하던 시절에는 과별로 반드시 4명의 인원을 뽑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로지 열정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주를 선발하였다. 다만 과별로 필수적인 통솔 인원이 필요하였는데, 해당 과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는 추가 모집을 통해 부족한 인원을 채웠다. 그렇게 총 39명의 새주가 구성되었다.

### 새터 준비 과정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새주들의 회의를 통해 새터를 준비하였다. 새터 전체 일정과 순서 등은 큰 사항을 먼저 짜고 세부 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포토존 디자인, 새터티 디자인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팀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특히 농대 및 문화관에서 진행한 게임의 경우 세부 게임 조를 많이 만들어 각 조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한 팀이 게임을 확실히 맡아 부스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예산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기획사 및 학교 행정실과 연락을 취하면서 문제 사항을 보완해 갔다.

### 새내기배움터 준비위원회장으로서 새터를 준비하면서 얻게 된 점?

사실 이번 새터가 처음부터 대면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대면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스스로를 더욱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사실이다. 새터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앞에서 이끄는 역할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체를 봐야할 때와 세부사항을 봐야할 때를 구분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아마 새터를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한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려웠고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 서는 법, 일을 시작하는 법, 전체를 보는 법을 배운 것 같다.

### 3년만의 대면 새터가 진행되었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사실 어려운 일투성이였다. 3년만의 대면 새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농새터를 개최한 적은 사실상 처음이었기에 아예 처음부터 새터 준비를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게임도, 활동도 제한적인 상황이었기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 같다. 어떤 활동이

어떤 게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방역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난관이었다. 또한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하루 일정이었기에 프로그램별로 일정 조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최대한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준비했고 많은 동아리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했다.

### 새터에서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도시락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옆에 있는 동기에게 준 일이 기억난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일만 해서 기억나는게 없다. 가장 기억나는 건 교수님들 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교수님 한 분께서 재미있는 캐릭터와 영상을 만들어 오셔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다. 교수님 소개 시간에 다들 웃으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재미있었다.

### 코로나로 20학번은 새내기때 새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새내기배움터를 준비한 소감

사실 20학번이 지금 학교에서 가장 비운의 세대가 아닐까 싶다. 21학번들은 새주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참여한 인원들이 많고, 슬슬 대면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20학번은 2년간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섭섭한 일도, 슬픈 일도 많았을 거 같다. 저도 만약 새짱이라는 역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22학번들을 볼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새짱이 참 어려우면서도 보람찬거 같다. 2022학번도의 첫 대형 행사를 준비한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더 잘 할 수는 없었을까 많이 아쉽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스스로 많이 느끼고,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새짱으로서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제한된 방법으로도 대면 새터를 기획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고 또한 다양한 부분으로 타협을 해야 해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 친구들과 학교 행사로 만나면서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다. 새터의 기초인 여행지(여러분의 행복한 지금을 위해)처럼 여러분이 학교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지금이 되었으면 한다.

새내기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학교를 빛내주세요!



# 발전기금 출연자 인터뷰



김창균 동문

우리 농업과 농생대의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발전 기금을 기부한 김창균 (주) 누보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 누보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2,992,000원을 기부하였다. 김창균 대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농업회사 근무 후 창업한 (주) 누보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주) 누보에서 다양한 고품질 농자재를 개발 및 공급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 Q1: (주) 누보에 대한 소개

농업 관련 무역 사업을 하던 중 2017년 누보라는 제조회사를 설립했다. 누보는 일반적인 비료와 농약이 아닌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농업이 가진 공공성을 바탕으로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자 창립하였다. 또, 누보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농약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골프장 관리 용역이나 골프장 위탁 경영,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정원예 제품 역시 생산하고 있다. 나아가 농산물 수출업 역시 맡고 있다. 예를 들어 녹차과동으로 인한 녹차 소비 급감이 발생했을 때, 녹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여 시장의 물고름 트이도록 하였다.

## Q2: 기금 출연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기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방향

회사가 위치한 곳이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센터인 만큼 매년 사업을 마감하면서 사업실적에 따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내기 시작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소개로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립 기금 역시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농업은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하다. 농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은 앞으로 발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IT 기술이나 빅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비료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누보에서도 효과가 좋고, 휘산이나 용탈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코딩된 비료를 개발해 미국 비료 협회에서 펀딩을 받고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 기술은 결국 세계 농업을 바꾸는 길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금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발전기금을 통해 연구개발능력을 확충하거나 농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

## Q3: 농업생명과학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단과대에 입학했다고 생각한다. 비록 농업 산업이 한국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 시장만을 볼 것이 아닌 세계 시장을 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500조 정도다. 하지만 농산업 시장 규모는 국내만 해도 400조 가까이 된다. 아직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농업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인재양성에 더욱 힘 써 주시면 좋겠다

발전기금을 통해  
연연구개발능력을  
확충하거나 농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

# 발전기금 출연내역

##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소식

역대누적금액 64,900,060,087원

기금출연 (2022.1.1~2022.12.31)

당기누적금액 8,557,402,448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윤대섭	4,060,000,000	김도순	8,400,000	최진용	999,960	김영후	170,000
윤태현	2,146,439,660	장판식	8,000,000	한희	800,000	김종혁	170,000
조태응	500,000,000	(주)한성티앤아이	4,000,000	오평환장학회	602,000	나상철	170,000
윤수현	462,060,000	류영렬	4,000,000	강상호	600,000	박민규	170,000
박연진	314,080,000	이상훈	4,000,000	익명	600,000	박진혁	170,000
김명희	206,340,000	이완걸	4,000,000	임용재	600,000	백승민	170,000
(재)오뚜기함태호재단	150,000,000	바이오시스템공학전문공동체	3,665,000	우제성	450,000	염경은	170,000
정인숙	126,293,326	서울신문사	3,000,000	김대우	360,000	이중석	170,000
동원통상(주)	100,050,000	(주)블루비에스	3,000,000	김동진	360,000	이후만	170,000
김종국	100,000,000	(주)내일신문	2,730,000	서민영	360,000	조종윤	170,000
최윤재	68,500,0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2,603,877	최재웅	310,000	최영균	170,000
피피에스	50,000,000	AGF(주)바이오시스템공학동리	2,000,000	박준호	240,000	홍성표	170,000
이창희	30,000,000	김필주	2,000,000	강성민	187,500	홍태화	170,000
(주)누보	28,000,000	리틀엔팜트리	2,000,000	권영혁	187,500	류준구	120,000
농생대 87년 입학생 일동	15,000,000	(주)더스킨스	2,000,000	김종철	187,500	손창은	120,000
국제벼연구소(IRRI)	14,252,625	티아그로	2,000,000	김태완	187,500	이영기	120,000
(재)국가농림기상센터	10,000,000	임재신	1,950,000	농회사법인(주)애플리아	187,500	민경진	100,000
(주)농우바이오	10,000,000	윤철희	1,300,000	문리인	187,500	오주선	75,000
김현중	10,000,000	이상규	1,260,000	문명학	187,500	정은주	60,000
민홍진	10,000,000	강문성	1,200,000	박병노	187,500	우제성	50,000
신경수	10,000,000	송인홍	1,200,000	박준하	187,500	최영선	1,000
아시아종묘(주)	10,000,000	양태진	1,200,000	박찬모	187,500		
이전제	10,000,000	정봉진	1,200,000	윤승욱	187,500		
주식회사 이지바이오	10,000,000	최원	1,200,000	이봉준	187,500		
차상석	10,000,000	김창길	1,000,000	이재호	187,500		
최명재	10,000,000	동물자원학과 9학번 일동	1,000,000	(주)가락지원유통	187,500		
		솔름바이오텍	1,000,000	최원구	187,500		
		이길순	1,000,000	한만우	187,500		
		익명	1,000,000	김상경	170,000		
		(주)케미다스	1,000,000	김성일	170,000		

## 농업생명과학교육 · 연구센터 건립기금 모금안내

역대누적금액 3,942,949,600원

기금출연 (2022.1.1~2022.12.31)

출연합계 99,574,877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최윤재	50,000,000	장판식	8,000,000	임용재	550,000	김동진	30,000
농생대 87년 입학생 일동	15,000,000	(재)국가농림기상센터	7,000,000	윤철희	500,000	박준호	20,000
		이상훈	4,000,000	윤철희	500,000	서민영	10,000
		류영렬	3,000,000	김동진	330,000	최영선	1,0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2,603,877	윤철희	300,000		
		임재신	1,850,000	박준호	220,000		
		양태진	1,100,000	서민영	110,000		
		정봉진	1,100,000	양태진	100,000		
		김창길	1,000,000	임재신	100,000		
		동물자원학과 9학번 일동	1,000,000	정봉진	100,000		
		이길순	1,000,000	임용재	50,000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혜택 및 출연방법 안내



## 참여방법

-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농생대 기획전략본부로 전화(☎ 02-880-4510)를 주신 후,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거나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약정은 홈페이지([www.snu.or.kr](http://www.snu.or.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006-601-280134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지로입금 | 지로입금을 희망하실 경우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별도로 보내드리며, 지로용지를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 참여 신청서에 은행계좌 및 이체일을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납입됩니다.
- 신용카드 | 참여 신청서에 카드명 및 카드번호를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납입됩니다.
- 교직원 급여공제 | 서울대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농생대 기획전략본부  
전화 02-880-4538 팩스 02-873-5579 이메일 [calsnews@snu.ac.kr](mailto:calsnews@snu.ac.kr)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  
홈페이지 농생대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new/?page\\_id=9897](http://www.snu.or.kr/new/?page_id=9897) 또는 [www.snu.or.kr](http://www.snu.or.kr)

# 예우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예우프로그램

구분	내용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패					감사장
	기념품, 서울대 달력					
	전시회·공연 초청					
기부자 명예 헌정 및 예우	명예의 전당 등재					
	기금 명칭 부여					
	총장 공관 만찬 초청					
	근조기 배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의전 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종합건강검진 주선	평생	평생	기한		

## 농업생명과학대학 추가 예우프로그램

내용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학장과의 만찬						
공간 네이밍						
학술림 숙소 이용	평생	5년	2년	1년		
기부자 벽 명패						
가구 네이밍						
농생대 행사 초청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참여신청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1. 기본정보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type="checkbox"/> 음력 년 월 일
우편수령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주소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자택번호 : 직장번호 :	직장정보 직장명 : 부서 : 직위 :
<input type="checkbox"/> 동문 학과(특별과정) : 입학년도(기수)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성명 : 학부(과) : 입학년도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부서 : 직위 :

## 2. 약정정보

희망사용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및 농생대 발전기금 (농업생명과학대학 위임, 보통재산)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액후원 일금 ₩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 년 월 (회 분납)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 원씩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기부동기 (남기고픈 말)	

## 3. 납부방법 (택 1)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농협 079-17-000136 <input type="checkbox"/> 신한 100-014-328209 <input type="checkbox"/> 우리 1006-601-280134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카드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 <input type="checkbox"/>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	---	---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정보	회원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선택정보	회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정보제공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 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및 농생대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	□	—	□	□	□
---	---	---	---	---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기획전략본부 200동 3003호  
Tel. (02) 880-4510 / Fax. (02) 873-5579  
<https://cals.snu.ac.k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기획전략본부 200동 3003호  
Tel. (02) 880-4510 / Fax. (02) 873-5579  
<https://cals.snu.ac.kr>

# CAL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NEWSLETTER**

2022 Winter No. 49